

STARCRRAFT®

LEGACY OF THE VOID™



BILZARD
ENTERTAINMENT

짐 레이너: 연합 보안관

연옥의 건널목

제임스 와우

코프룰루 구역에서 짐 레이너가 싫어하는 것을 꼽자면, ‘연옥의 건널목’이 단연코 으뜸이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연합 보안관의 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기에, 레이너는 다시 한 번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 마 사라의 악명 높은 무법지대 중앙에 도사린 지옥과도 같은 사막 협곡을 찾아갔다.

임신 중인 부인 리디에게 이틀 내로 돌아갈 거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평상시의 두 배 속도로 황량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시체매 주위로 돌풍이 으르렁거렸다. 매캐한 공기는 건조하고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물의 입맞춤을 받은 이후 영겁의 세월이 지나버리기라도 한 듯 단단하게 다져진 사막은 태양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갈라져 정맥처럼 길게 뻗은 틈이 생겨났다. 인간이란 이런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레이너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중단할 생각은 없었다.

앞쪽 먼 곳에서 마치 그를 환영하지 않는 신기루처럼 이리저리 뒤틀린, 글렌 맥아론 법률 집행관과 경찰 호버트릭의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다. 레이너가 인계받아야 하는, 연합 공인 중형 감옥 상자도 함께였다. 이들의 그림자는 높이 떠오른 오후 햇살에 잔뜩 부풀어 오른 모양새였다.

“젠장.” 잘 가라며 입맞춤하던 리디에 대한 기억만큼 앞쪽 사물들의 윤곽이 또렷해지자, 짐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연옥의 건널목은 마 사라에서도 악명 높은 “전파 이상 지대”의 중심이었고, 이는 벡터 평형 장비가 대부분 정상 작동하지 않고, 통신 역시 극도로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장소라는 뜻이었다. 그 때문에 이 사막에서 수송선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은, 설사 그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다 하더라도 무척 위험한 생각이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전파 이상 지대 주위로 2,400킬로미터 반경은 이 행성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이기도 했다. 이는 마 사라의 무법자들과 떠돌이 범죄자 무리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연합 과학 연구단’의 머저리들은 그런 전파 이상 현상이 지하의 풍부한 광맥으로부터 뻘뻘하게 솟아 나온 희귀한 수정 군락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적 자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 때문에 짐은 이 행성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죄수들을 이송하기 위해, 이 구역에서 가장 위험한 언덕에 올라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집행관을 상대해야 했다.

“상자를 가져가려고 왔나, 아니면 같이 들어가려고 왔나, 보안관?” 레이너가 시체매를 멈춰 세우자 맥아론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비꼬는 표정을 보면 그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제가 법을 어기게 만들 만큼 지독한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겁니다.” 레이너는 모래 위에 침을 뱉었다. 맥아론은 최근 수 년 동안 많이 물렁해졌다. 지난 번 만났을 때만 해도 두툼한 뱃살이 지금처럼 허리띠를 비집고 나오려 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마주칠 때마다 그 배는 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았다. 집행관은 얼마 남지 않은 느긋한 퇴직 생활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꼬마야. 네 전과 기록은 내가 여기 끌고 오는 대부분의 범죄자들보다도 훨씬 다채로우니까. 네 잘난 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늘 엘 인디오로 가야 하는 건 아마 너였겠지?”

“집행관 나리, 갱생이 뭔지 잊었습니까?” 짐은 전매특허인 멋진 미소를 지으며 바이크에서 내렸다. 맥아론은 꽤 오랫동안 배지를 달고 있었고, 그래서 짐의 과거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 집행관과 같은 사람들은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변하지도 않았다. 예전 범죄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익혀 온 습관이었다.

“아아, 인간은 변하지 않아, 보안관. 법의 수호자 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 자네도 알게 될 거야. 내가 항상 널 지켜보는 이유를 말이야.”

“물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행관님.” 레이너는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여기 친구들은 누구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전기가 흐르는 창살 안을 들여다 보았다. 연합의 감옥 상자는 경찰 수송선을 비롯한 부유한 세계의 편의 장비들을 감당할 수 없는 변경 식민지와 오지 행성의 상징물과도 같았다. 이 상자는 자기 차축을 이용하여 땅 위로 떠올라, 시속 480킬로미터까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자동으로 온도가 제어되는 환경에서 생물학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며, 깨끗하게 정화된 산소가 30분 간격으로 보충되는 구조였다. 짐에게는 어째 범죄자들이 자신보다 더 쾌적한 대우를 받는 것만 같았다.

“아, 잘 알다시피, 흔해 빠진 유쾌한 녀석들이지. 기초 교육을 받고 이제 마 사라의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 예정이야.” 갑자기 보안관의 목소리가 몇 데시벨 높아졌다.

“다들 듣고 있나, 친구들? 너희 모두 엘 인디오 감옥으로 가게 될 다야!” 그 뒤에 이어진 웃음은 갑자기 거칠고 축축한 기침이 폭발하며 끊어졌다. 이번에도 그의 말은 우스개గా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잔혹한 진실일 뿐이었다.

짐은 웃지 않았다. 엘 인디오 감옥은 농담으로 입에 올릴 곳이 아니다.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비정한 교도소로, 가장 거친 범죄자들만 수용하는 곳이었으며, 그곳에 수감되는 죄수들의 생존률이 고작 64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연합의 정의가 은하계의 가장 바깥쪽에서 실체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저치들 좀 보라고.” 보안관은 모래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세금 크레딧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아? 최선의 결과는, 저 녀석들이 여기 연옥의 건널목에서 살아 나가지 못하는 거겠지.”

“빌어먹을 멍청한 짓거리는 그만두고 어서 출발하는 게 어떻겠소?” 상자 안의 수감자 중 하나였다. 괴물처럼 크고 건장한 체격에 새까만 콧수염과 뺨뺨 민 머리가 눈에 띄었고, 두

팔은 마치 전파 중계기의 기둥처럼 두꺼웠다. 그리고 이 구역 여기저기에서 새긴 끔찍한 문신이 온 몸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를 흔들 순 없다는 양 짐을 노려보았다. 보안관 한 명 정도는 그저 자신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안내할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저 녀석은 조심하는 게 좋아. 아무래도 제 어미가 제대로 버릇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모양이니까. 마듀크 사울, 자네가 만나 봤을 악당 중 가장 끔찍한 녀석이지. 폭행, 살인, 테러, 납치에 버르장머리 없는 개자식이라 여기 끌려왔고.” 맥아론은 다시 침을 뱉었고, 이번엔 걸죽한 액체가 감옥 상자 위 마듀크의 얼굴 바로 옆을 때렸다.

마듀크도 사납게 대꾸했다.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다행인줄 아시오, 집행관.”

“그거야 맞는 말이지.”

레이너는 마듀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듀크는 어디 할 수 있으면 맥아론처럼 덤벼 보라고, 무례하게 굴어 보라고 도전하는 듯한 시선을 레이너에게 던졌다. “아니, 뭐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네요, 집행관님. 곰돌이 인형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 사울?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지. 아주 쉬운 일이야.”

마듀크는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아, 천사처럼 굴어 주겠소, 보안관. 못되게 굴려던 건 아니요. 그저 호사스러운 우리 숙소로 빨리 가고 싶어서 들렀던 것뿐이지.”

“제발, 보안관님, 절 엘 인디오로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요.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상자 뒤쪽에서 비쩍 마른 몸집에 금모래빛 머리카락과 온화한 얼굴을 한 죄수가 나타났다.

오렌지색 낙하복은 그의 왜소한 체격에 비해 너무 컸다. 그는 사막의 열기와 죄수복에 어울리지 않았으며, 웬지 타소니스 시의 금융가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저 녀석은 로드니 오신. 대부분은 경범죄였어. 소위 사무직 종사자의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부르던 일인데... 마 사라의 정부 기금을 바이러스로 해킹해서 싹 가로채 버렸어. 예쁘장하지? 엘 인디오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걸.” 맥아론이 다시 웃었다.

“만나서 반갑군, 로드니.” 레이너는 미소를 지었다. “별 일 없을 거야.”

“퍽이나 그러겠어요, 보안관님. 인디오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 살인자가 아닙니다. 모두 오해라고요. 연합 판사가 절 미워해서 이렇게 됐어요. 전 정말 견딜 수 없다고요.”

“별을 받을 수 없다면 죄를 짓지도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 레이너? 아, 잠깐, 그건 자네도 모르지?”

“당신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짐 레이너 보안관.” 세 번째 죄수가 빛이 비추는 곳으로 나섰다.

“티본 스몰스. 샤일로 이쪽 편에선 가장 대단한 열차강도라고 하지. 자네들은 님은 구석이 꽤 많은데.” 맥아론은 짓궂게 웃었다.

“그래, 맞아. 내가 당신 별명을 물려받은 것 같지?” 티본이 말을 이었다. 레이너는 그를 곰곰이 살폈다. 낮이 익었다. 짐과 같은 수염을 기르고 얼굴엔 흉터가 나 있는, 젊고 콧대 높은 망나니. “전쟁 후에 당신과 그 타이커스 핀들레이가 했던 일은 전부 들었지. 나와 내 갱단이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할 무렵, 당신네들은 우리에게겐 전설 같은 존재였어.”

짐은 뱃속이 뱀 주머니처럼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타이커스 핀들레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지도 몇 년이 지나 있었다. 그 편이 좋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르던 옛 동료와, 그가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예전의 삶에 대해 잊을 수 있었다. 잘못을 속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삶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삶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준 건 리디였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설명해 주면 좋겠군. 어떻게 당신 같은 무법자가, 나 같은 열차강도가 초짜 시절부터 존경해 왔던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보안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티본은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정보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마듀크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짐은 그 살인자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있잖아, 친구들, 여기 이 보안관은 높은 곳에 친구들이 있어.” 맥아론이 짐을 향해 능글맞게 웃었다. “치안 판사였지, 아마.”

“헛소리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맥아론.” 레이너는 일어섰다.

“난 사람도 죽인 적 없어, 보안관. 그냥 정직하게 하루 일당을 벌려고 일한 거지.” 티본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다시 기회를 얻고 난 그러지 못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삶은 원래 불공평해. 저 보안관은 그저 또 하나의 예일 뿐이고.” 오랜 침묵 끝에, 마듀크가 냉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가 볼까요?”

레이너는 맥아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딴 짓을 또 했다가는, 집행관, 대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맥아론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냉소적인 미소도 싹 사라졌다. 레이너가 여기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보안관은 짐의 대답에 담긴 무게를, 자신이 예전의 그 무법자를 얼마나 걸으로 끌어냈는지를 느꼈다. 맥아론은 레이너의 두 눈에 이글거리는 불길을 보며, 한참 손을 더듬어 다리에 묶은 작은 주머니를 열고 디지털 팔찌를 꺼냈다. “이건 중앙 서의 새 장난감이야. 저 친구들 발찌를 제어하지. 이 버튼을 누르면 쿵, 하고 다리 하나가 날아가. 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파직, 하고 저 녀석들은 고통스럽게 땅에 뒹굴어야 할 거고. 알겠나?”

레이너는 그 장비를 받아 들었다. 상자 안 죄수들의 발목에 커다란 금속 침쇠가 단단히 물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맥아론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녀석들을 밖으로 꺼내 주지는 않는 게 좋아. 상자 안에는 마실 물도 충분하고, 각자 앞으로 이들은 더 버틸 수 있는 영양 삽입물이 주입되어 있어. 그게 소변과 대변 기능도 제어한다고 하던데... 감옥에 가기 전에 수감자들이 달아나거나 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안전을 도모하라고.”

“처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짐은 감옥 상자에 달린 긴 금속 줄을 시체매 바이크 뒤에 연결했다. 쓸모 없이 말을 낭비하지 말자. 일은 그만둬야 했다. 상자와 운송 수단을 단단히

결속하는 금속 줄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물질이라는 촉매를 사용하여 강화된 합금 재질이었다.

“또 봅시다, 보안관님. 암전히 앉아 있어, 친구들. 좀 덜컹거릴 수도 있으니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레이너는 가속기를 당겨 눈앞에 펼쳐진 사막 황무지를 향해 달렸다.

짐의 마음은 마구 내달렸다. 생각의 구름이 바람처럼 스쳐 지났다. 옛 시절의 기억, 타이커스 핀들레이와 함께 악명 높은 강도라고 낙인이 찍혔던 시절, 될 대로 되라는 듯 하루를 살고, 흠치는 만큼 흥청망청 쓰던 그때의 기억. 얼근하게 취한 채 방탕하게 살며, 세상 그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충동에 따라서만 행동하던 시절이었다. 짐이 거의 죽일 뻔했던 시기이자, 그보다 끔찍하게도 삶의 가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죽을 뻔했던 시기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새 생명이 그보다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만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시속 320킬로미터로 달리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휘젓는 이 과거를 아이가 언제쯤 알게 될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때엔 아이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궁금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지른 그가 옳고 그른 것의 차이에 대해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집중해, 짐. 토끼굴에 빠져 길을 잃지 말라고. 연옥의 건널목에서는 강도를 만날 확률이 무척 높았다. 도둑과 해적,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살아 있는 그 무엇도 개의치 않는 비정한 악당들이 어디 있을지 몰랐다. 모두 살인자들이었다. 주위 지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잘못된 동행을 만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다. 추억을 더듬으며 자신을 비난하느라고 리디가 미망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젠장, 그는 맥아론이 정말 싫었다.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들자, 사막 황무지는 다채로운 색의 멜랑주가 되었다. 아삭한 푸르름이 줄지어 흐르는 붉은 빛 줄기에 갈래갈래 조각나는 모습은, 낮이라는 시간이 외치는 아름다운 죽음의 메아리였다. 이 시간에는 사막이 달라 보였다. 신비한 꿈 속 풍경처럼, 만화경을 들여다 보듯 변화무쌍한 하늘이 영원히 이어지고, 거친 모래는 하나의 거대한 검은 바다가 되었다. 황량한 관목 숲 역시 밤의 어둠에 흐려지고, 낮을 불태우던 뜨거운 열기도 겨울의 스산함에 자리를 내주었다.

시체매의 전조등에서 뻗어 나가는 날선 빛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되자, 레이너는 속도를 늦추고 야영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1,600킬로미터를 거슬러 왔다. 800킬로미터 남았다.

“왜 멈추는 거죠?” 레이너가 바이크의 뒤쪽으로 가서 짐 싣는 곳을 뒤적거리려니, 로드니가 거칠게 말했다. “이러지 맙시다... 제발요, 보안관님. 여기 뭐가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조용히 해.” 티본이 로드니에게 말했다. “그냥 오줌만 싸려는 거지, 보안관?”

“아니야. 어, 그건 아직이고. 야영을 하려는 거다.”

“뭘 한다고요?” 로드니의 목소리가 몇 옥타브 위로 치솟았다.

“추적 시스템과 경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연옥의 건널목을 통과할 순 없어. 이맘때엔 전파 이상이 극에 달하니까 말이야. 너희들도 몸 성히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을 거 아냐?”

“그리고 싶기 때문에 대체 왜 여기 멈추는 거냐고 묻는 거다, 보안관.” 스몰스의 얼굴이 전기가 통하는 창살 가까이 다가왔다.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건데?” 짐이 천막을 꺼내며 물었다. 그가 적외선 등을 꺾어 켜자 붉은 불빛이 얼굴을 비쳤다.

“노예상인... 강패... 제일 두려운 건 노예상인들이죠. 노예로 팔려 나가기 보다는 죄수로 사는 게 나으니까요.” 로드니는 잔뜩 예민해져 있었다.

“여기서 더 움직이면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아져. 움직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아침이 되면 바로 움직이자.”

“여기 정말 노예상인들이 있나?” 마듀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메이저 갱단이지.” 스몰스가 덧붙였다. “연옥의 건널목을 지나는 여행자들을 약탈하고, 광물 지대를 연구하러 온 과학자들을 납치하며 지난 몇 년 간 명성을 쌓아 왔어.”

“난 노예상인이 싫어.” 마듀크는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만난 적 있나요?” 로드니가 레이너에게 물었다.

“아니. 그럴 생각도 없고.”

레이너는 야영지를 세운 후 휴대용 식량을 조리하며 여분을 세 개 더 만들었다. 죄수들이 그 음식에 음탕한 시선을 던지며 창살 가까이 다가왔다.

“한 명이 먹을 것 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스몰스가 너스레를 떨었다.

“전부 내 건 아니야, 친구들. 난 요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도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영양 삽입물은 남자의 배를 채워 주지는 않으니까. 나도 전에 맞아본 적이 있어. 군대 시절이었지.” 레이너는 식량 세 개를 들고 상자 측면으로 다가가 삽입구를 열었다. 톱니바퀴가 움직이며 나는 웅웅 소리와 함께, 식량은 안전하게 보호막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다들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좋을 거야.” 레이너는 맥아론에게서 받은 팔찌를 들어 보였다. “너희가 찬 그 귀여운 발찌는 꽤나 아프니까 말이야.”

“왜 날 쳐다보는 거요?” 마듀크가 물었다.

“딩치 아저씨, 당신이 제일 배고파 보이거든.”

죄수들은 저녁 식사에 달려들어서는, 수십 년 전에 초음파 건조되었을 스케일렛 고기가 담긴 질척거리는 카레 국물을 손가락으로 마구 떠 올렸다. 레이너도 마찬가지로였지만, 포크를 사용했다는 점만 달랐다. 리디의 집밥 덕분에 어느새 이런 음식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죄수들은 고급 식당의 만찬을 즐기기도 하듯 게걸스레 음식을 삼켰다.

“그래, 보안관, 무법자 시절 얘기 좀 해 주겠어?” 식사를 마친 스몰스가 말을 꺼냈다.

“방금 먹을 걸 주셨는데...” 로드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좀 봐 드리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 쥐새끼야.” 스몰스가 번개처럼 로드니를 향해 돌아서자, 레이너는 별떡 일어나 팔찌를 가리켰다.

“걱정 마시오, 보안관.” 마듀크의 으스스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저 녀석들이 내 저녁 식사를 망치려 한다면, 당신이 나설 일은 없을 거요.”

“그럼 당신을 막아야 되겠지. 안 그래?”

“그렇지.”

“열차 강도 시절 얘기를 듣고 싶다고?” 레이너는 마음을 놓았다. “난 기댈 곳 없는 멍청한 꼬마였어. 부모님을 병 들고 가난하게 만들었던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려 했고, 시작부터 꼬여 있던 전쟁에 환멸을 느낀 폭주족이었지. 그 전쟁은 더 부자가 되려 한 타소니스 사람들과, 어떻게든 일하고 싶었던 나 같은 사람들이 엮히락뒤치락하는 놀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었고. 내가 저항군이자 악당이었냐고? 그럼, 물론 그랬지. 그게 자랑스러울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 난 자랑스럽다. 망할, 뼈 빠지게 가난한 연합 광부가 되어 빵 부스러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보다는 낫지.” 티본은 웃었다. “난 그 따위 성인군자 같은 애길 할 생각은 없어. 난 그저 술에 취해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붙잡힌 거라고. 당신,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겠지, 보안관? 그 시절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었다고. 좋아, 마음대로 해. 당신이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넌 어때?” 레이너는 로드니를 향해 물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전... 그냥 욕심이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전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부렸을 뿐이라고요. 처음 시작한 뒤에는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크레딧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 돈의 원래 주인은 어떻게 됐는데?” 레이너가 물었다.

“댁이 말해 보시지. *당신*이 다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소, 레이너? 그렇게 이 창살 밖에서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는 건 높은 자리에 잘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일 뿐. 이 사회는 공평하지 않고, 그래서 나 같은 나쁜 사람이 생기는 거요.” 마듀크는 느긋하게 등을 기댔다. “당신 같은 운 좋은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들은 모두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무 말도 없이, 레이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시끄러운 고함의 불협화음에 잠에서 깬 레이너는 황급히 천막을 빠져나가 서늘한 아침 속으로 들어섰다. 감옥 상자 안에선 마듀크가 티본을 번쩍 들어올려 전기가 흐르는 창살에

밀어붙이는 중이었다. 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둘의 몸에 전류가 흘렀지만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개새... 날 내려 놔!”

레이너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빠르게 팔찌를 누르자, 마듀크의 발찌에 불이 켜지며 직접 신경 자극제를 내뿜었다. 마치 치과 의사가 뼈죽뼈죽하고 녹슨 기구를 썩은 이에 밀어 넣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단지 이 경우엔 온몸의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동시에 그런 고통이 느껴졌겠지만. 덩치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 바닥에 쓰러졌다. 스몰스는 그를 내려다 보며, 꺾진 주먹을 들어 당장이라도 내리칠 준비를 했다.

“꿈도 꾸지 마!” 레이너의 손가락이 팔찌 위를 맴돌았다.

“보안관, 봐 주쇼. 딱 한 대만 제대로 칠 테니까.” 티본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절대로 안 돼.” 레이너가 말하자 스몰스는 주먹을 풀고 물러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입을 너무 많이 놀리는데, 도무지 쓸모 있는 건 나오지 않아서 말ियो.” 마듀크는 만족스러운 듯 레이너를 향해 미소 지었다. “크게 해치려고 한 건 아니오... 그냥 적당히 타이르려 했지. 조금 두들겨 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더군.”

“거기까지만 하라고. 이제 짐을 싸야겠어. 다들 다음 숙소에 체크인을 해야 할 테니까.”

마듀크는 티본을 향해 입맞춤을 날렸다. 지금까지 이 세상 위를 날아간 입맞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티본은 이 남자의 허세에 경의를 표하듯 웃었다. 그가 마듀크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터였다. 하지만 로드니는 레이너를 향해 돌아섰다. “보셨죠?” 그리고 소리쳤다. “이거 봐요, 보안관님, 전...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제발... 전 인디오에 갈 수 없어요. 전 달라요.”

삼십 분 후, 그들은 다시 협곡을 가로질러 달렸다. 뜨거운 열기도 다시 돌아와 절정에 이르렀다. 그 건조하고 매캐한 열기는 쉬지 않고 살갗을 파고들어 뼈를 달궜다.

그들은 평평한 분지 지형에 언덕만큼 거대한 광물이 솟아 있는 깊은 협곡, 심판의 계곡을 가로질렀다. 레이너는 푸른 광물 기둥 중 하나를 따라 올라가며, 발 아래 펼쳐진 검은 틈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꼭대기에 올라서자 북쪽으로 16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거대한 연기

줄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황량한 땅에선 그리 흔한 광경이 아니었다. 짐은 바이크를 세우고 쌍안경을 꺼냈다.

렌즈를 통해서는 연기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확대해 보니 폭발로 인한 불길이 수송 차량의 차체를 활고 있었다. “젠장.” 레이너는 혼잣말을 했다. 팔자 때문인지 이런 일에 얽히는 건 일상이었지만, 하필이면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집에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리디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지금 이 때에...

“왜 멈춘 거죠, 보안관님?” 로드니가 물었다.

“십육 **클릭** 정도 전방에 수송 차량이 피격당한 모습이 보여.”

“그래서?” 티본이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들러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이봐, 보안관, 그건 당신 일이 아니잖아.” 티본이 말을 이었다. “오늘 인디오로 가야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보안관님.” 로드니가 애원했다.

“조용히 해.” 레이너는 시동을 켜고 수송 차량을 향해 달렸다.

그들이 접근하는 동안에도 연기는 두텁고 검은 구름처럼 휘돌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차량의 잔해를 둘러쌌다. 차체 주위로는 불길이 솟아나오며 잔해를 검게 태웠다. 조각난 차량이 여기저기 흩어진 모습을 보면, 로켓 발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차량을 뒤집고 차체를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게 만든 게 분명했다. 이와 같은 파괴의 현장은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전쟁 중의 일이었다. 또 무법자 시절에도 로켓포가 수송 차량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목격했었다. 타이커스가 은행 차량에 로켓으로 구멍을 뚫고, 차량을 뒤집어 안에 탄 사람들을 거의 모두 죽일 뻔했던 일이 기억났다. 그 사고 현장에서 그와 타이커스가 흠치려고 하던 크레딧과 함께 경비병까지 모조리 불에 타 재가 되어 버릴 뻔한 순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달아나던 모습이 떠올랐다.

레이너는 시체매를 세웠다. 녹은 고무와 매캐한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틀어막았다. 썰기총의 상흔이 남은 사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이들의 피에 지면은 온통 진흙탕 같았다. 방호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과학자들이 분명했다. 연옥의 건널목에서는 기업 단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구역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이 매장된 지역이었기에,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 사라와 심지어 차우 행성에서까지 과학자와

광부들이 모여들어 전리품을 캐 가려고 했다. 타소니스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과학자들은 자신의 목숨과 팔다리를 걸고 이곳 광물의 효능을 연구했다. 같은 광물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이 구역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 왜 하필 이곳에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수정들이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었다. 그 이유를 처음 알아내는 기업이라면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에서 뭔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총집을 향해 손을 내렸다. 작은 광물 뒤에 누군가의 정수리가 보였다.

“이리 나와라.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 레이너는 바이크 뒤에 쪼그리고 앉아, 총을 꺼내 들고 대답을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뭘 하는 겁니까, 보안관님? 어서 몸을 숨겨요!” 로드니가 상자 안에서 소리쳤다. 레이너는 총을 총집 안에 다시 넣었다.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레이너가 소리쳤다.

“저리 가요!” 광물 덩어리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가라고요.”

“전 보안관입니다, 부인. 어서 나오세요.”

“꼭도 그렇겠쥬. 그냥 가요.”

“보세요. 여기 배지도 있습니다.” 레이너는 두 손을 들어올렸다. “보이십니까?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매끈한 회색 악천후 방호복을 입은 비쩍 마른 여자 하나가, 얼굴에 잔뜩 숫 검댕을 묻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바위 뒤에서 일어섰다. 양손으로 조명탄 총을 짊 쥐고 짐을 겨냥하고 있었다. 부들부들 떨어서인지 총도 앞뒤로 요동쳤다. “가라고 했잖아요.”

“총을 내려 놓으십시오, 부인. 어차피 생각하시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이너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상대를 안심시켰다. 그녀도 마음을 놓았는지 총을 든 손을 내렸다.

“총 내려 놓으라고, 이 여자야!” 상자 안에서 티본이 소리를 치자, 그녀는 다시 총을 바짝 들어 올렸다.

“닥쳐!” 레이너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여자를 향해 돌아섰다. “제 이름은 짐 레이너입니다. 연합 보안관으로, 지금은 죄수를 호송하고 있죠. 여기는 제가 이송하는 죄수들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다시 조명탄 총을 내렸다. “미안해요. 전... 아, 세상에,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레이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노예상인들이예요. 메이저 갱단이었어요. 저희 현장 연구를 하던 중이었는데, 놈들이... 습격해 왔어요. 수송선을 공격했죠. 누구도 살려 주지 않았어요. 전 숨었고요. 놈들은 저희 야영지도 찾아냈어요. 제발, 보안관님, 그들이 지금 우리 베이스캠프로 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거기 있어요. 막아야 해요.”

“진정하세요. 당신을 여기 혼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망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티본이 소리쳤다.

레이너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제가 대신 사과하죠. 이제 안전합니다. 가시죠.”

그 과학자는 바위 뒤에서 나왔다. “아뇨,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안전하지 않아요. 놈들은

이미 제 동료들을 죽였어요. 제발 다른 사람들이라도 구해 주세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요?”

“우린... 공동체 전체가 함께 여기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젠장, 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래도 당신을 여기 둘 순 없다고요.”

“총을 주시면 제가 숨을게요. 베이스캠프의 좌표를 알려 드리고요. 가세요. 적어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라도 해 주세요. 제발요. 다들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할 순 없어요. 메이저

갱단이잖아요...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레이너는 한숨을 쉬었다. 지원을 요청하고 싶었다. 해병 1개 대대를 불러들여 메이저 갱단과

괴물 무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어서 리디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싶었다.

“보안관님, 그냥 가자고요. 제발요!” 로드니가 소리쳤다.

허나 짐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이래, 마 사라로 옮겨온 이래, 예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래, 그는 줄곧 후회스러운 과거를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껴 왔다. 옳은 일을 하면 과거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게 그런 옳은 일이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야만 하는 일. 레이너는 시체매의 보관함에서 소총과 위장 망토를 꺼냈다. 이 망토는 활성화하면 주위 환경과 동화되어, 착용자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편리한 장치였다. 어젯밤에 먹었던 것과 같은 식량도 조금 챙겼다. 그리고 모두 여자에게 건넸다.

“이걸 사용하세요. 계속 숨어 계시고요. 누군가 다가오면, 이 총을 쓰면 됩니다.”

“농담하는 거지?!” 티본이 상자 안에서 소리쳤다. “절대 안 돼, 난 노예가 돼서 살지는 않겠어.

정신 좀 차려.”

“우린 아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다 이러다가 죽는 거야, 레이너 보안관. 죽은 영웅 따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짐은 이미 시체매에 올라 있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부인.” 그리고 그 말만 남기고 바이크를 출발시켰다.

수동 운항 장치는 그를 심판의 계곡 더 깊은 곳, 과학자가 그에게 알려 준 좌표로 이끌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뱃속이 더 강하게 뭉쳐 왔다. 집 현관을 나서 연옥의 건널목으로 떠날 때 들렸던, 마치 노래 같았던 리디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아른거렸다. *빨리 돌아와요. 꼭 무사히 돌아오라고요!*

레이너는 언덕 꼭대기에 바이크를 멈추고 내린 후, 도마뱀처럼 배를 깔고 엎드려 쌍안경을 눈에 댔다. 화면 위에서 베이스캠프의 좌표가 초록색으로 깜박이더니, 사각형 면이 지평선 위 한 점으로 좁혀진 후 시야가 100배 확대되었다. 이제 연구 기지가 눈에 들어왔다. 원형 건물 꼭대기에는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위를 보급고가 둘러싼 형태였다. 그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움직이는 것이 있는지, 거주자들의 안전 혹은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는 없는지 살폈다. 개조하고 검게 칠한 시체매 바이크가 줄지어 선 모습이 보였다. 그 중 여러 대에 해골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개조된 감옥 상자도 그 중 하나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쇠약해진 사람 두 명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다. 햇빛에 잔뜩 탄 거칠한 피부를 뼈가 뚫고 나오기라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꽤나 오랫동안 그렇게 붙잡혀 있었던 듯했다. 이곳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똑같이 불운한 이들이었다.

“망할.”

“놈들이 보여, 보안관?” 티본이 다급하게 물었다.

“닥쳐. 들키고 싶은 거야?” 레이너는 딱 잘라 말했다.

“보이나 봐요. 보인다고요. 아아, 이럴 수가.” 로드니가 킁킁댔다.

레이너는 계속해서 기지를 살폈다. 놈들은 어디 있지? 아이들은 또 어디 있을까? 그때 한 무리의 남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줄지어 걷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 바지를 입고 문신을 새긴 가슴에 셔츠 없이 가죽 조끼만 걸치고, 붉은 색 모호크 머리를 한 남자를 따라가는 중이었다.

그는 목에 가시가 박힌 목줄을 하고, 코걸이를 끼고 있었다. 뱃속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

메이저 갱단이었다.

기지를 계속 살피자 갱단원들이 더 눈에 들어왔다. 무장한 상대가 적어도 열 명은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서 떨어져 따로 줄지어 모여 있었다.

“젠장.” 화가 났다. 수적으로 불리하고, 무기도 열악하고, 죄수 이송 경로에서 160킬로미터나 벗어나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까지 그를 찾아오진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쌍안경을 들여다 봤다. **화면의 사각형**이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십대 소년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아이들은 총 네 명이 되었다. 시야를 위쪽으로 돌리자, 지금까지 현상수배 전단이나 영상 메시지 속에서, 또 행성 간 법률 집행 정보 업데이트에서 수없이 보아 왔던 얼굴이 눈에 띄었다. 메이저였다. 대머리에 눈처럼 하얀 수염, 근육질 체형과 붉은색으로 빛나는 인공 눈. 삼입물이 낮이 익었다.

“돌아버리겠네.” 수없이 많은 생각이 레이너의 마음을 스쳤지만, 모두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메이저와 같은 인간이 배회하는 이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올 참이었다.

“놈들이 있소?” 마듀크가 물었다.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로드니는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어쩔 거야, 보안관?” 티본이 물었다. “일단 여기서 빠져 나가서 본부에 알려야 하겠지?”

“보안관, 저기!” 마듀크였다. 레이너가 재빨리 쌍안경을 눈에서 떼고 뒤로 돌아서자, 협곡을 가로질러 가는 메이저 갱단의 경찰병이 보였다. 자신들을 올려다 보는 고글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었다.

“망할.” 짐은 시체매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다. “통신을 차단해야 해. 빨리... 어서... 됐어!” 고주파 음이 울려 퍼지고, 연결이 이루어지자 경찰병의 통신이 차단되었다. 레이너는 시체매 뒤에서 긴 소총을 꺼내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저격용 조준경을 통해 확대해 보자 시체매 바이크는 매 순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목표를 조준했다. 이 방법뿐이라는 게 정말 싫었지만, 단호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천둥 같은 반동과 함께 탄환은 경찰병을 맞췄고, 그가 바이크에서 떨어지자 시체매는 그대로 사막을 미끄러졌다. 명중이었다. 무법자 시절이었다면 타이커스가 자랑스러워 했을 만한 한 발이었다. 대대 저격병이었던 릭 키드만이 할 수 있었을 멋진 사격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찰병의 연락이 없으면, 저들이 찾으려 오겠지.* 그러면 일이 복잡해진다. 어쨌든 행동해야 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경찰병은 죽었고, 갱단 일부는 아이들을 한데 모으고, 또 다른 자들은 과학자들을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여기 감옥 상자에는 죄수 세 명이 있다. 무기도, 인원도 불리했다.

레이너는 감옥 상자로 다가가 마듀크 사울을 똑바로 바라봤다. “유탄 투척기 사용하는 법 알아?”

“알 것도 같은데.” 대답하는 마듀크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넌 어때, 떠별이? 썰기총이나 유탄 투척기 쓸 수 있어?” 레이너의 시선이 티본에게 향했다.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넌, 로드니? 총 쏘본 적 있어?”

“저는 ... 뭐...”

“총 쏘본 적도 없을 걸.” 티본이 끼어들었다.

“있어요, 정말 있다고요.” 로드니가 답했다.

레이너는 다시 아래쪽 협곡을 향해 돌아섰다. 계곡에서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니 샤일로에서 지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거래를 하자. 저기 제대로 나쁜 녀석들이 열 명 있는데, 과학자들과 아이들을 모아서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더 심한 짓을 하려고 한다. 머지 않아 놈들이 저 경찰병을 찾으러 올 건데...

아무래도 나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 불리할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그렇지.” 티본이 레이너의 말을 자르며 답했다. “턱도 없는 만용이야.”

“그런데 여긴 너희 세 명이 있고, 내 시체매 화물 칸에는 무기도 가득 들어 있거든. 땅거미 지뢰까지 포함해서 온갖 무기가 다 있어.”

“어... 보안관, 죄수 세 명에게 무기를 쥐어 주는 건 그다지 영리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겠지, 스몰스. 그런데 내게는 아직 이 팔찌가 있고, 여기 단추 여섯 개만 사용하면 너희에게 꽤 큰 고통을 줄 수가 있거든. 거기 마듀크에게 물어봐.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 어리석은 짓만은 아닐 거야.”

“우리가 왜 널 도와야 하는지 다시 설명해 보시지.” 스몰스가 철창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내가 인디오에서 너희 애길 잘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연합 보안관을 도와 줬다고 하면 간수에게 점수를 딸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죄수들의 손에 죽겠지.” 마듀크는 콧방귀를 뀌었다.

레이너도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살았던 시절을 생각해 봤다. 항상 도망쳐야 했던 나날을 떠올렸다. 처음엔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걸잡을 수 없이 위험하게 맴돌며, 마치 탈출할 수 없는 후회의 회전목마와도 같았던 그 시절을.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마 사라의 치안 판사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희망을 주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제안을 한 후에야 모든 것이 달라졌다 ... 그렇게 그는 연합 보안관이 되고, 더는 범죄자로 살지 않았다.

“좋아, 덩치 아저씨.” 레이너가 가까이 다가갔다. 시간이 없다. 빨리 행동해야 했다. “구원을 받고 싶었던 적 있어?”

“당신처럼 말이야?” 티본이 끼어들었다. “잘난 윗분이 전과 기록을 싹 지워 주는 기회 같은 거?”

“그래...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도와 줘. 그러면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너희가 모두 잡혀갔다고 해 주겠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봅시다.” 마듀크도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을 도와주면 우릴 놓아 주겠다는 건가?”

“괜찮은 거래 같은데. 너희에게 내가 누렸던 것과 같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 살인자를 내보내 주겠다고?” 티본은 마듀크를 향해 콧방귀를 끼었다.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전 좋아요.” 로드니가 말했다. “믿어 주세요. 전 하겠습니다. 총만 쏘면 인디오에 가지 않는다고요? 망할, 당연히 해야죠.”

“내가 잃을 게 뭐 있겠어? 좋아... 그래, 좋지.” 티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어때, 덩치 아저씨?”

마듀크는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내가 당신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건가?”

“맞아.”

“왜 그래야 하지?”

“남자가 이 세상에 남기는 건 말 한 마디뿐이잖아, 마듀크. 난 지금 그런 말로 네게 약속을 하는 거고.” 레이너는 살인자와 눈을 맞췄다. “내가 널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시오, 레이너? 그런데 그걸 지킨 놈은 하나도 없었어... 젠장, 약속을 지킨 놈만 있었어도 내 삶도 달라졌을 거요. 내가 예전에 믿었던 녀석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또 내가 믿었던 어떤 놈은 날 처음으로 스팀바에 데려갔고. 또 어떤 자식은 날 살인자와 죄수들 소굴에 끌어들였지. 내가 약속을 믿은 결과는 모두 그랬소, 보안관. 정말로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걸 존중하는 세계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군.”

“내 세계에서 살아 봐.” 레이너는 다시 상대를 자극했다.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고 싶지 않은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군.”

“나도 똑 같은 생각을 했었지.” 레이너가 말했다. “달리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는 모르겠어. 과연 이걸 당신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마듀크는 고개를 가웃했다. 곰곰이 생각하며 모두를 가늠하는 중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답했다. “당신 약속을 믿겠소, 레이너. 그걸 깨뜨리게 되면, 뭐, 충격을 받지야 않겠지만... 망할, 좋아. 어차피 노예가 되는 건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노예상인들을 좀 처리하자고, 친구들.” 레이너가 팔찌의 버튼 두 개를 누르자 창살을 둘러싼 빛이 파직거리며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자 상자 뒤쪽의 창살이 올라갔다. 레이너는 시체매의 물품 보관함을 열고 연합에서 지급한 무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썰기총, 유탄투척기, 가우스 소총까지. 그 아래에는 땅거미 지뢰가 담긴 초록색 통도 보였다.

“이야,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티본이 농담처럼 말을 뱉었다. “내가 큰 녀석을 가져가지. 가우스 소총.”

“아니, 그건 내게 더 잘 어울려.” 주저하지 않고 마듀크가 가우스 소총을 집어들었다.

“내게 생각이 있어.” 레이너가 말했다.

네 사람은 조용히 한 걸음씩 움직여 가장 남쪽에 있는 보급고에 다가갔다. 그 밖에선 메이저의 갱단원 두 명이 보관함들을 살살이 뒤져 가장 좋은 물품들을 골라내서는 한 곳에

던져 모았다. 둘 다 검은 옷을 입었고, 강렬한 색상의 머리카락과 귀걸이가 돋보였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면도라는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게 분명했다.

레이너와 죄수들은 보급고 뒤쪽에 몸을 기댔다. 짐이 수신호를 하자 마듀크와 티본이 반대쪽으로 돌아갔고, 레이너와 로드니는 정면으로 향했다. 로드니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레이너는 이미 달려 나가서는, 개머리판을 들어올리고 무법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 눈치를 챘을 땐 이미 개머리판이 그 중 한 명의 이마와 정통으로 충돌한 후였다. 그 소리는 광물을 캐는 유압식 채광 장치에서 나는 낭랑한 소리와 꼭 닮아 있었다.

노예상인은 뒤로 쓰러졌고, 베스핀 간헐천처럼 피를 내뿜었다. 다른 무법자는 총을 집어 들고 아직 다가오고 있던 로드니를 겨눴다. 하지만 그가 총을 발사하기 전에, 모퉁이에서 나타난 마듀크가 오른팔로 헤드록을 걸고 왼팔로는 그의 입을 가린 채 그대로 들어올렸다.

“뒤쪽으로 데려와.” 레이너는 의식을 잃은 무법자의 발을 끌어 보급고의 그늘 아래로 옮겼다.

마듀크는 계속 다른 무법자를 붙잡고 있었다. 아무리 거세게 꿈틀거려도, 단단하게 얹힌 거한의 두 팔은 움직이지 않았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온 마듀크는 노예상인을 내려놓고는

초음속 같은 주먹을 그의 턱에 날렸다. 상대는 그대로 땅에 쓰러져서 골록거리며 피를 뱉어 냈다. 레이너는 쪼그려 앉아 그의 턱을 잡고 들어올렸다.

“아이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지?”

무법자의 얼굴이 볼 베어링에 얹힌 것처럼 왼쪽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릿광대처럼 활짝 웃는 얼굴은 잔뜩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연방 보안관이군. 멋진 상품이 되겠는데.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어.”

과지끈! 이번엔 레이너의 주먹이 무법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다. 레이너는 많은 사람들의 자백을 받아내 봤지만, 지금 이 상대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소총을 들어올려 남자의 관자놀이에 댔다.

“소음기 모드로 전환했다. 이 지역에서는 내 판단에 따라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상관 없어. 애들은 경매장으로 데려간다... 과학자들은, 뭐, 무덤으로 데려가고.”

“과학자들은 아이들 같은 값을 받을 수 없거든.” 이렇게 말하고 티본은 침을 뱉었다.

“부관은 뭘 좀 아는데.” 무법자가 말했다. 그리고 로드니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더 활짝 웃었다. “저기 저 친구 있지? 저 녀석이 약점이야.”

눈 깜짝할 순간에 무법자는 벌떡 일어나 로드니의 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자가 총을 미처 붙잡기 전에, 마듀크가 가우스 소총으로 그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다.

“이런, 이 소리 다 들렸겠는데요.” 로드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면 어서 움직여야지. 마듀크, 너와 스몰스는 아이들을 찾아 줘.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 봐. 아직 기지 밖으로 나가진 못했을 거야. 로드니, 넌 나와 함께 가자. 처형을 막아야 해! 아 참, 친구들, 그 발씨는 꽤 멀리에서도 작동한다고.”

“믿지 못하는 자여...” 티본은 히죽 웃고는 마듀크를 향해 말했다. “갑시다, 괴물 양반. 아이들을 구해야지.”

짐과 로드니는 쪼그려 앉은 채 보급고 벽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움직이며 야영지 뒤쪽으로 접근했다. 둘은 모래 위에 길게 난 발자국들, 즉 희생자와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둘씩 짝지어 걸어가며 생긴 발자국을 따라갔다. 이제 바로 앞쪽 사령부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소나 안테나의 그늘이 드리운 벽 쪽으로 달려가 천천히 뒤쪽을 돌아봤다.

“망할.” 레이너가 중얼거리며 로드니의 셔츠를 끌어당겨 땅에 얹드리게 했다. “몸을 낮춰. 저 놈들이... 지금 과학자들에게 자기 무덤을 파게 시키고 있어.”

이제 그들이 보였다.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삽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흙 속에는 일곱 번째 과학자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총을 맞은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위에 웅덩이를 만드는 중이었다. 과학자들 뒤에는 메이저와 친구들 셋이 서 있었다.

레이너는 가방을 벗어 내려 놓았다. 그 안에는 땅거미 지뢰가 있었다. “좋아, 이걸 설치한 다음에 저 자식들을 이쪽으로 불러 오자고. 내가 신호하면 격발기를 눌러. 알겠어?”

레이너는 무엇이 그를 때렸는지 알지 못했다.

로드니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총구의 측면이 레이너의 얼굴을 때렸고 그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위를 올려다보려 했지만 눈꺼풀을 떼 수가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개골 깊은 곳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오는 굴착기 같은 소음에 다른 모든 소리가 묻혔다. 적이 사각에서 공격해 온 건가? 메이저가 그의 생각보다 뛰어난 전술의 달인이라 경찰병을 더 배치했던 걸까?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레이너는 억지로 눈을 떴다.

앞에 서서 그를 옆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 로드니였다. 그는 팔을 뻗어 땅거미 지뢰가 가득 찬 가방을 주워들었다.

“크레딧이 꽤 짹짹하겠는데.” 로드니는 레이너를 내려다 보고, 그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뭐라도 붙잡으려 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 참, 보안관 양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몰라? 난 죄수야! 바보 같기는!” 그 말만 남기고 로드니는 짐의 코를 짓밟았다. 레이너의 세계가 검게 변했다.

마듀크와 티본은 보급고를 나선 후 길을 따라 수분 유도 탐 근처에 메이저 갱단의 바이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갔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둘은 모래

위를 기어 조금씩 접근했다. 마듀크는 한창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습해서, 상대가 미처 자신을 보기도 전에 쓰러뜨리곤 했다. 이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가끔은 칼로, 대부분은 총으로, 또 아주 간혹, 어쩔 수 없을 때는 맨손으로 하기도 했다. 물론 마지막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느리고 고되며, 사람들이 죽고 마지막 숨이 폐에서 빠져나갈 때의 꿈틀거림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 죽음이 하나하나 마듀크의 곁에 머무르며, 한밤중이나 성가신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있을 때면 불현듯 찾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죽음이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눈을 깜빡여야 하지도 않았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건 나름대로 끔찍한 일이었고, 모든 기억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소름 끼쳤다. 그는 이제 지쳐 있었다. 살인에도, 숨어 지내는 일에도 그랬다. 그는 오히려 엘 인디오에 투옥되는 일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예전의 동료들이 일거리를 들고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 이제는 그가 끝났다고만 생각할 것이다.

만에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다른 이들 모두 그가 죽었거나, 연옥의 건널목에서 실종됐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어쩌면 레이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과 같은 쓰레기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물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살인의

나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상대는 살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다들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를 거다.

마듀크와 티본은 수분 유도 탭 가장자리로 기어갔다. 풍차의 날개는 느릿느릿 회전하며 미세한 사막의 바람을 불들고 있었다. 반대쪽에는 메이저 갱단원이 어린 아이들을 독립된 감옥 상자에 태우고 있었다. 상자는 예전 모델이었으며, 창살은 건조한 황무지에서 오랜 시간 머문 탓에 녹슬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공포와 근심이 여실히 드러났다.

수분 유도 탭의 날개가 마지막으로 고되게 회전하며 삐걱 소리를 내는 순간, 마듀크는 스몰스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지금이야!”

마듀크 사울은 벌떡 일어서 은신처에서 빠져 나와, 가우스 소총을 발사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초음속 썰기가 발산하는 고주파음이 귀를 먹먹하게 했고, 썰기는 몸을 꿰뚫고 뼈를 조각냈다. 티본도 재빨리 따라와 무기를 들고 갱단 사이에 연이어 유탄을 발사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렸고, 일부는 땅에 넘어지거나 상자 뒤쪽에 숨기도 했다. 메이저 갱단은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마듀크는 프로였고, 기습의 효과로 저울은 이미 그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현대전의 무기와 함께라면 늘 그렇듯이, 시작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마무리도 빨랐다. 인간의 육신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썰기를 견딜 수 없고, 최강의 보호복이라고 해도 어딜 조준해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마듀크는 자신이 벌여 놓은 대학살의 광경을 음미했다. 시체매 바이크와 감옥 상자 등 곁에 놓인 것들의 뒤에 헐레벌떡 숨어 움츠린 아이들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들의 눈물은 안도와 의아함, 공포가 뒤섞인 산물이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로채러 온 걸까, 아니면 구출하러 온 걸까? 마듀크는 이해했다. 아이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들이 무엇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꼬마야. 물지 않을게... 우리 아가씨가 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티본은 개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 아이를 음흉하게 바라봤다. 열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금발의 예쁜 아이였다.

“입 닥쳐, 스몰스. 주둥이 계속 닫아 두지 않으면, 그 망할 얼굴에서 턱을 뜯어내 주겠어.” 마듀크는 얼음 같은 시선으로 티본 스몰스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다들 괜찮다, 알겠지? 아무 문제 없어.” 주위에 피와 죽음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의 말을 믿을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젠장, 그냥 농담하는 거였잖아, 이 덩치야. 저 소중한 아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지... 아, 물론, 저기 저 아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아무 망설임 없이 마듀크는 티본의 목을 잡고 들어올렸다. “입 닥치고 닫아 두라고 하지 않았던가?”

티본은 숨이 막혀 헐떡거리며, 유탄 투척기를 떨어뜨린 후 양손으로 사울의 손아귀를 풀어내려 했다. “알았어.” 그리고 가까스로 소리를 냈다. “놔줘.”

“어이, 친구들! 그만둬.”

돌아선 마듀크의 눈에 로드니가 레이너의 팔찌를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의 팔찌를 조종하는 물건이었다. “내려놔 줘.” 로드니는 말을 이었다. “우린 자유야.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마듀크는 스몰스를 내려놓고 손에 힘을 풀었다. “보안관은 어떻게 됐지?”

로드니는 히죽 웃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게 문제였지.” 그리고 팔찌의 버튼을 누르자 모두의 발찌가 풀어졌다. “무슨 상관이야? 그 녀석이 우릴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지. 여기 바이크가 있잖아. 맞아, 저 죽은 과학자의 신분증 태그도 있지. 메이저 놈들이 찾아오기 전에 어서 가자고.”

티본이 웃었다.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사태와, 자유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휩싸인 탓이었다. 엘 인디오에 갈 일도, 위험한 사태를 겪어야 일도 없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게 문제였지*. 이런 젠장. 끝내줬다, 꼬마야. 이런 널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었다니.”

“살아 있나?” 마듀크가 물었다.

“누구?” 로드니가 답했다.

“보안관.”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좀 세게 때렸거든.” 로드니는 바이크를 향해 다가갔다.

아이들은 위험을 감지했는지 몸을 웅크리고 감옥 상자 곁에 함께 모여 있었다.

“저 깜찍한 것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안 그래, 로드니?” 티본의 시선이 다시 금발 소녀를 훑었다. 아이는 감옥 상자의 벽에 기댄 채 미끄러져 앉더니, 창살을 붙잡고 그 뒤에 숨기라도 하려는 것만 같았다.

마듀크는 범죄자들을 바라봤다. 그와 같은 자들, 추악한 과거와 붕괴된 도덕관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가 일생 동안 함께 지내 왔던 자들. 그리고 그 순간, 레이너의 목소리가 마음 속에 울렸다. *남자가 이 세상에 남기는 건 말 한 마디뿐이잖아, 마듀크. 난 지금 그런 말로 네게 약속을 하는 거고.*

“티본!” 그가 외쳤다.

스몰스가 돌아보는 순간 마듀크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스몰스는 피를 흘리며 단호하게 땅 위로 고꾸라졌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로드니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마듀크는 그대로 그의 콧대를 때려
기절시켰다.

아이들은 더욱 혼란에 빠진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들 지난 몇 시간 동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생에 걸쳐 목격할 폭력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고, 그 중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야, 이게 누구인가. 진짜 연합 보안관 아냐.” 메이저는 사디스트적인 기쁨을 감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레이너를 내려다 보고 금니를 활짝 드러내며 웃었다. 그의 인공 눈이 웅웅
소리를 내며 눈앞의 광경을 확대하는 중이었다.

레이너는 조심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떴다. 흘러내린 피가 굳어 눈꺼풀이 들러붙어 있었다.
얼굴이 아팠다. 많이 아팠다.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흔들리는
시선과 피 때문에 자신을 내려다 보는 남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시야가 안정되자,
그는 한 마디 말을 뱉었다. “메이저.”

메이저가 뒤에 선 두 명의 노예상인을 향해 돌아서자, 커다란 웃음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야, 이것 좀 보라, 애들아. 나도 꽤 유명해진 모양이다.”

“노예상으로 유명한 거지.” 레이너는 기침을 하고, 피를 삼켰다.

“그게 나쁜 짓이던가? 자, 이제 일어나.” 메이저는 유탄투척기를 레이너의 얼굴에 가져다 댔다.

침은 총구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끝이 나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 망할 죄책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다. 예전 자신의 죄를 만회하고, 또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믿겠다는 어리석은 욕망 때문이었다. 얼마나 유치했던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를 모양이었다. 하지만 끔찍한 건, 더욱 끔찍한 건, 리디와 자신의 아이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망할.” 레이너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두 발로 섰다. 그리고 메이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몸을 추스렸다. 무릎을 꿇거나 목숨을 구걸하여 이 노예상인에게 만족감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적어도 품위는 지킬 것이다.

메이저는 그의 시선을 그대로 맞받았고, 상대의 인공 눈은 시선을 조정하며 끼익, 하는 소리를 냈다. “보여줄 게 있다. 돌아서라.”

“안 돼.” 레이너가 말했다.

“안 된다고?”

“날 죽이려거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라.”

메이저는 그렇게 했다. 살기가 등등한 시선이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이 풀어지며 짓궂은 미소가 되돌아오더니, 충치와 함께 황금으로 씌운 앞니가 드러나 번뜩였다. 바로 그 순간, 미소는 사라지고 메이저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더니, 유탄투척기가 레이너의 배를 강타했다. 레이너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쿨룩거리며 시뻘건 피를 토해냈다.

주위 노예상인들의 웃음 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뱃속에서는 마치 뭔가가 줄줄 흐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유탄투척기가 다시 그의 이마에 와 닿았다.

“보안관, 마 사라에서 그 동안 수고 많았어.”

짐은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오래 전 타이커스와 전쟁을 치르던 시절에 대해 생각했다. 이걸로 충분했기만을 바랐다. 마지막엔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만을 바랐다. 리디가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망각을 기다렸다.

초음속 뿔개가 살갓을 찢는 팻-팻-팻-팻 소리에 레이너는 숨을 내쉬었다. 두 눈이 번쩍 떠졌다. 그 중 어느 것도 그의 육신을 꿰뚫진 않았다. 메이저는 죽은 채 쓰러져 있었고, 다른 두 노예상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위 대기는 온통 뿔기들로 가득 찼고, 남은 노예상인들은 황급히 달려들다가 쇠도하는 강철에 잘려 쓰러졌다. 레이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주위로 모래가 휘돌았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비명과 육신을 짓이기는 끔찍한 소음, 거센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총성은 멈췄다. 침묵 속에서 모래가 가라앉고, 레이너는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메이저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의 인공 눈알이 초점을 조정하자 자동 제어 장치가 앞뒤로, 다시 앞뒤로 움직였다. 레이너는 총을 들고 앞으로 기어가며, 먼지와 모래의 안개 속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누가 남은 건지, 그게 아군일지 적일지 알 수 없었다.

“보안관?”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관, 다 끝났소.”

레이너가 아는 목소리였다.

“마듀크?” 속삭이듯 말한 레이너는, 다시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사울, 당신인가?”

“약속은 지켰소, 보안관.”

이제 레이너도 그를 볼 수 있었다. 온몸을 때리는 모래 사이로 나타난 검은 형체는, 밝아 오는 새벽빛을 받아 근육질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다. 짐은 일어서려 했지만 배를 찌르는 듯한 고통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사방에 널린 시체는 조각나고 흩어져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구원을 찾았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눈앞도 흐릿했지만,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궁금한 건,” 마듀크는 가우스 소총을 두 손으로 짐에게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킬 건가 하는 문제요.”

연옥의 건널목을 거의 빠져나갔을 때 즈음이 되어서야 실감이 났다. 그는 심판의 계곡에서 과학자를 데리고 베이스캠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시체를 묻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악몽을 꿀 거라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또 마듀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할 것임을 알았고, 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삶이 내보이는 온갖 어둠에 맞서 그들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만을 바랐다. 스캐너가 깜빡이며 다시 켜지고, 시체매의 통신 장치는 채광 트럭 운전사와 수송선 조종사, 또 이 지역 토박이들이 거칠게 쏘아붙이는 말소리로 가득 찼다. 엘 인디오는 320킬로미터 남았다. 이내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화물은 처음 계획과는 달라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죄수가 두 명뿐이었다. 티본 스몰스와 로드니 오신. 살인자 마듀크 사울은 메이저 갱단과의 싸움에서 사살당했다. 사울과 다른 악당들은, 자신의 무덤을 제 손으로 파야 했던 불운한 과학자들과 함께 커다란 공동 묘지에 묻혔다.

그건 그가 마음 속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 본 후 털어놓기로 한 이야기였다. 사울은 떠났다.

짐은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고, 마듀크는 풀려나 새로운 삶과 희망을 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누구든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바람이 귀를 간질이고, 레이너는 엘 인디오의 출구를 지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되새겨 보았다. 메이저 갱단의 바이크를 탄 마듀크가 연옥의 건널목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떠올랐다. 짐처럼 저무는 해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밤이 새로운 하루로 지워지듯, 그의 과거도 (아마) 깨끗이 지워졌을 것이다. 짐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다. 그 자신도 그럴 수 있을지 고민하던 날도 있었다. 이제 와 깨닫게 된 것은, 그저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리디를 향해, 자신의 아이를 향해, 그가 누릴 자격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삶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는 그걸 깨닫게 되어 좋았다. 아주 좋았다.

끝